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와 동해포경어장

김명수*

fallsky@z2.keio.jp

Contents

머리말

1. 일본의 근대 포경업 도입과 일본원양어업의 설립
2. 동해 포경특허 취득과 일본 근대 포경업의 전개
3. 러일전쟁과 일본 근대 포경업의 정착

맺음말

Abstract

本稿の課題は、日本遠洋漁業株式会社の事例を取り上げ、日本捕鯨業の近代化が韓国の東海捕鯨漁場と密接な関係を持っ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あった。本稿での考察により諾威式(ノルウェー式)捕鯨業の導入とともに始まった近代的捕鯨業が東海捕鯨漁場の制覇から日本国内に定着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判明した。また、韓国の支配権をめぐる日露間の角逐がもっとも赤裸々に現れた事例が、東海捕鯨漁場をめぐって展開された日露間の捕鯨戦であり、そして日露戦争の勝利とともに東海捕鯨業が日本の独占下に置か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も先行研究により提示された。さらに、日本遠洋漁業に参加した山口県の実業家たちが、水産業でない朝鮮勸農株式会社(1907)という農業会社を設立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帝国主義の韓国侵略を下から支える役割を演じたことが指摘された。日本遠洋漁業は、以後東洋漁業株式会社(1904~1909)、東洋捕鯨株式会社(1909~1934)、日本捕鯨株式会社(1934~1936)、共同漁業株式会社(1936~1937)、日本水産株式会社(1937~1943)にまでつながる日本捕鯨業界の一大潮流を形成するようになるが、そうした流れの形成に決定的な契機を提供したのが韓国の東海捕鯨漁場であったといえよう。結論的に、日本捕鯨産業の近代化にとって日本帝国主義による韓国侵略が不可欠であったのである。

Key Words : 日本捕鯨業の近代化、日本遠洋漁業、東海捕鯨漁場、ノルウェー式捕鯨、岡十郎

머리말

본고의 과제는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日本遠洋漁業株式会社, 이하 ‘일본원양어업’으로 줄임)의 사례를 들어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가 동해포경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동해포경어장 진출과 포경회사 설립이 한국의 식민지화를 둘러싼 러일 간 각축의 産物이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민간레벨에서 한국 침략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본원양어업의 경영변동 속에서 究明하고자 한다.

한말 한국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러일 간의 각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동해 포경업에 주목한 연구로는 朴九秉의 선구적이면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박구병에 의하면, 일본원양어업의 탄생은 동해를 놓고 벌인 러일 간 捕鯨戰의 산물이었으며, 포경전 또한 동해 制海權 장악을 둘러싸고 전개된 군사적 대결의 표면적 양상에 불과했다. 또한 同 논문은 러일전쟁까지 러시아에 열세를 보이던 일본의 포경업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동해 포경업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대어 일본원양어업의 등장 배경과 경영변동,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 전개된 일본 포경업계의 재편과정을 보다 상세히 밝힘으로써 연구사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동해 포경업과 관련된 인물들에 주목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일본의 산업화 그리고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본 그 중에서도 야마구치 현(山口県) 실업가들의 역할을 해명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원양어업의 후신으로 1909년에 설립된 동양포경주식회사(東洋捕鯨株式会社, 이하 ‘동양포경’으로 줄임)가 일본근대포경업사를 자사의 社史 형식으로 정리한 『明治期 日本捕鯨誌』(1910)와 메이지·다이쇼 기(明治大正期)에 활약한 야마구치 현 출신 인물들의 약력을 묶어 편찬한 『現代防長人

1) 朴九秉(1970) 「韓末 東海捕鯨業을 둘러싼 露·日의 角逐」 『亞細亞研究』 3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에서의 연구는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와 동해포경어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에는 근대 포경업 기술의 도입과정과 포경업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나와 있어 참조가 된다. 渡辺洋之(1998) 「近代日本捕鯨業における技術導入と労働者」 『科学史研究』 第37卷(No.205), 日本科学史学会.

物史』(1917)를 주자료로 하였다. 특히 전자는 1899년부터 10년간 일본 포경업을 이끌며 포경업의 근대화를 확립시킨 오카 주로(岡十郎, 당시 동양포경의 사장)의 談話를 각종 통계 및 법령자료와 함께 정리한 것으로, 이후 간행된 일본 포경업 통사의 자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²⁾

1. 일본의 근대 포경업 도입과 일본원양어업의 설립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와 일본에 의한 한국 동해포경어장의 독점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오카의 주도로 1899년 7월에 설립된 일본원양어업이었다. 아래에 인용된 당대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오카는 일본에 노르웨이식 포경을 도입하고 정착시킨 인물로서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를 이끈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³⁾

岡十郎君은, 我國 諾威式 捕鯨業界의 特勳者로서, 또한 關西 實業界 現代의 活動家로서, 赫灼한 君의 業績 및 立志的 奮闘의 徑路는, 우리나라(일본:인용자) 諾威式 捕鯨業史의 濫觴으로, 또한 斯業 發達의 骨子였다. 이 計劃의 動機 및 苦心한 君의 經過에 對해서는 世상에 전해 水産業者는 물론, 一般 企業家 및 後進의 資料에 供給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⁴⁾ (번역 및 밑줄은 인용자)

그는 한국 동해 포경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1907년경부터 일본 수산업 특히 포경업계의 최고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는데,⁵⁾ 그 최초 발판이 된 회사가 바로 일본원양어업이었다. 따라서 먼저 오카가 어떠한 계기로 한국 동해 포경업에 관심을 갖고 일본원양어업의 설립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카가 수산업(특히 포경업)에 투신하게 된 것은,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2) 대표적인 것이 羽原又吉(1957) 『日本近代漁業經濟史』下卷, 岩波書店, pp.139~171

3) 下関市教育委員会編(1986) 『下関の記念碑-旧市内編-』, pp.67~68

4) 井関九郎編(1917) 『現代防長人物史』天, 發展社, p.372

5) 岡十郎은 1907년 朝鮮海水産組合長에 취임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당시 한국 근해 어업의 중심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絹の道の会(1994) 『しものせき・人・物語(五)』, p.49

재학 시절⁶⁾ 은사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일본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한국 어장의 중요성과 잠재성을 강조하며 한국 수산업에 진출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었다.⁷⁾ 그러나 그 배후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첫째, 일본의 재래식 포경법인 망취식(網取式) 포경이 182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 일본 포경의 제1기 황금시대를 구가한 뒤 미국 포경선단의 일본 근해 진출과 더불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국 포경선단의 대규모 조업으로 일본 연안까지 헤엄쳐 오는 참고래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를 주요대상으로 하던 망취식 포경이 침체에 빠졌던 것이다.⁸⁾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 포경업계는 신기술의 도입, 포경조직의 개조, 새로운 어장의 개발 등 다양한 대응책에 부심하였다. 먼저 신기술로는 미국식 포경의 도입이 모색되었으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였고, 전통적인 포경조직인 구지라구미(鯨組)⁹⁾가 주식회사로 개조되기는 했으나 신기술의 도입을 도외시한 조직만의 개조에 불과했으며, 홋카이도(北海道)나 한국 근해 등에서 새로운 어장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陸上의 처리 가공 판매 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¹⁰⁾ 일

6) 岡十郎은 1870년 阿武郡 奈古에서 西村利右衛門의 5남으로 태어났으나, 뒤에 岡吉輔의 양자가 된다. 下関教育委員会編(1986), 위의 책, p.68. 岡十郎이 최초 西村十郎이라는 이름으로 입학했다가 뒤에 岡十郎으로 改姓한 이유이다. 慶應義塾에 입학한 것은 1887년 2월 17일이나 졸업한 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출석부가 1887년 제2기부터 명확히 존재하고 있어 그의 慶應義塾 재학은 확실하다. 『慶應義塾入社帳』 第三卷, 慶應義塾, 1986年, p.Ⅲ330 ; 『明治二十年第二期 慶應義塾勤惰表』, p.20

7)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pp.372~373. 그가 재학하고 있던 시기(1887~1891)에는 福沢諭吉가 講壇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직접 지도를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국 근해 어업에서 차지하는 山口県의 특수한 위치를 감안한다면 수산업 투신을 권유받았을 가능성은 크다.

8) 당시 범선으로 이루어진 미국 포경선단이 일본에서 처음 포경어장을 발견한 것은 1820년이였다. 이후 미국식 포경업이 最盛期였던 19세기 중반(1820~1865년)에는 연평균 100척의 미국포경선이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였으며, 1864년에는 292척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따라서 각 어장이 급격히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福本和夫(1960) 『日本捕鯨史話:鯨組マニユファクチュアの史的考察』, 法政大学出版局, pp.198~199. 이들 포경선 중에는 한국 근해에까지 來獵한 것도 있었다. 朴九秉(1970), 앞의 글, p.3. 당시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던 미국 포경 선단이 식량 또는 음료수의 보급, 해난사고의 발생 등의 경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페리제독이 일본의 개국을 요구한 배경에 일본 寄港을 원하는 미국 포경 선단의 요구도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川澄哲夫(2004) 『黒船異聞:日本を開国したのは捕鯨船だ』, 有隣堂.

9) 鯨組에 대해서는 福本和夫(1960), 위의 책, 제4장 「わが沿岸網取捕鯨業の発展」에 자세히 다.

본 포경업의 위기상황은 여전했다.

둘째, 일본 舊來의 어장이 이미 작은 구획별로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데다 조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이다. 예컨대, 원양포경주식회사(遠洋捕鯨株式會社)의 경우, 나가사키 현(長崎縣)의 이키 군(壹岐郡)이나 미나미·기타마쓰우라 군(南北松浦郡)에서는 해안 및 沿岸區劃漁場으로부터 10해리 이내, 그리고 가미·시모아가타 군(上下島郡, 지금의 쓰시마[對馬])의 5해리 이내에서 조업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서를 나가사키 현으로부터 받고 있었다.¹¹⁾ 따라서 수산업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은 국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셋째,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두 제국주의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포경회사가 한국 동해에 진출하여 활발한 성적을 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沿海測量이라는 군사 활동까지 겸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한국 동해포경어장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1891년에 이루어진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의 일본 방문이 계기가 되었지만,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동해의 제해권 장악도 고려되었다.¹²⁾ 자본금 120만 루블의 태평양포경회사를 설립하는데 러청은행(露淸銀行)의 內助가 있었던 사실,¹³⁾ 연해측량을 장려하기 위해 러시아 해군성이 매년 5만 루블의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¹⁴⁾

10) 大隅清治(2003) 『クジラと日本人』, 岩波書店, pp.64~65

11) 中園成生(2001) 『くじら取りの系譜』, 長崎新聞社, p.183

12) 朴九秉(1970), 앞의 글, p.29. 니콜라이 황제의 일본 방문과 당시 발생한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해서는 野村義文(1992) 『大津事件:露国ニコライ皇太子の来日』, 葦書房을 참조.

13) 시베리아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청나라와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영국에 대항하여 청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증강한다는 목적으로 러시아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1896년 1월 개업하였다. 러시아 정부 주도하에 프랑스의 은행그룹과 러시아 국제상업은행 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였다. 1906년까지 1500만 루블의 발행주식 대부분은 러시아 정부가 소유하였다. 본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청, 몽골, 일본, 프랑스에 19개 지점과 러시아에 22개 지점이 있었다. 1900년의 거래고는 러시아에서 제5위로 본래의 상업활동에서 차츰 정치적 활동이 더 커지게 되었다. 러일전쟁 후 큰 물질적 손해를 입고, 1906년부터 주도권이 프랑스 자본의 손에 넘어갔다. 1910년, 러시아정부의 재가를 얻어 북부(北部)은행과 합동하고 러시아-아시아은행으로 개편되었다. <http://kr.dic.yahoo.com/> (검색일 : 2007년 8월 10일)

14) 당시 황태자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쿠로파트킨(A.N. Kuropatkin) 장군과 카이젤링 백작(Count G. Keyserling)이 歸航 도중에 한국 근해에서 鯨群을 발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가 태평양포경회사를 설립한 것이었다.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天, p.373. 정식 회사명이 Pacific Whale Company of Count G. Keyserling로서 카이젤링 백작의 태평양포경회사이나 이하 태평양포경회사라 칭한다.

더우기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가 1894년부터 식량과 음료 등의 보급을 위해 나가사키에 寄港하기 시작하였고, 1896년부터는 일본에 鯨肉까지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 현재 일본의 경육 수입량은 106만 근, 1897년에는 180만 근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7만 원에 달하였다. 상당량에 달하는 경육의 수입은 부진을 겪고 있던 일본의 포경업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육의 가격을 하락시켜 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¹⁵⁾ 일본의 포경업계가 크게 자극받은 것은 당연했다.

이상의 배경 하에 일본 포경업계는 위기를 타개하고 동해포경어장에서의 러시아에 의한 포경업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노르웨이식 포경이라는 신기술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도입에 착수하고 있었다. 노르웨이식 포경은 1864년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획기적인 포경법으로, 기선의 선수에 탑재된 捕鯨砲로 밧줄과 연결된 포경작살을 발사하여 고래를 포획하는 방법이다. 추진력이 강한 프로펠러를 장착한 증기선(기계선)으로 고래를 쫓다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날개가 접힌 상태의 포경작살을 발사하는데, 명중되면서 작살 끝에 있던 炸裂彈이 터지면서 砲殺시키고 동시에 고래 몸속에서 작살의 날개가 펴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포경이 가능했다. 그래서 노르웨이식 포경을 砲殺捕鯨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고래가 죽게 되면 작살과 연결된 밧줄을 이용하여 鯨體를 舷側으로 끌어당겨 예선하여 기지로 돌아오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일본의 재래 포경법인 망취식 포경이나 미국식 포경이 遊泳力이 遲鈍하고 사후 鯨體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는 고래만을 대상으로 한 데 반해 노르웨이식 포경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포획 대상과 포획량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시켰다. 즉, 노르웨이식 포경은 사양길에 접어든 일본의 포경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¹⁷⁾

한편, 일본이 경계하고 있던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는 이미 노르웨이식 포경을 채택한 선발주자로서 1895년에서 1904년까지 10년 동안 약 1000마리를 포획하여 연평균 약 100마리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성적은 일본

15) 中國成生(2001), 앞의 책, p.182 ; 渡辺洋之(1998), 앞의 글, p.4

16) 中國成生(2001), 위의 책, pp.178~180 ; 大隅清治(2003), 앞의 책, p.66

17) 朴九秉(1970), 앞의 글, pp.3~4

18) 世界水産總覽編輯委員會編(1965) 『世界水産總覽』, 農林經濟研究所, p.328

의 후발주자들을 자극하여 1897년을 전후로 나가사키시의 원양포경주식회사, 나가토 시(長門市) 센자키(仙崎)의 사토 진키치(佐藤甚吉), 하카타(博多)의 규슈포경주식회사(九州捕鯨株式会社), 홈링거상회가 대리 영업했던 영리인포경조합(英露人捕鯨組合) 등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결여한 채 급조됨으로써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休廢하고 말았다.¹⁹⁾ 보다 확실한 포경회사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후쿠자와가 이러한 당시 정세를 읽고 문하생인 오카에게 포경업에의 투신을 권유했고, 또한 후술할 가와키타 간시치(河北勘七)를 비롯한 아마구치 현 출신 정치가 및 실업가들이 별도의 루트로 포경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오카를 참여시키고 그를 중심으로 일본원양어업을 탄생시킨 것이었다.²⁰⁾

오카에게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에 拮抗할 만한 포경회사의 설립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인물로는 아마구치 현 출신 중의원 의원 가와키타 간시치가 지목된다. 가와키타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상경, 1887년 벨기에 유학하여 브뤼셀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1893년 귀국한 뒤 중의원 의원에 당선(1894년 제4회)된 인물이었다.²¹⁾ 1895년 최연소 중의원 의원이었던 가와키타는, 일본이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되자 구스모토 마사타카(楠本正隆),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스에히로 시게야스(末廣重恭) 등과 함께 대외강경책을 주장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²²⁾ 특히 가와키타는 정당

19)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天, p.373

20) 岡十郎은 1897년 4월에 山口県 県会 議員에 당선되었고, 다음해인 1898년 7월에 山口県 通漁組合長에 취임하고 있어 이미 山口県 수산업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絹の道の会(1994), 앞의 책, p.48

21) 河北勘七은 1894년 9월 1일 시행된 제4회(임기:1894.9~1897.12) 衆議院議員總選舉에서 처음 衆議院 議員에 당선되었고, 이후 제6회(임기:1898.8~1902.8)에도 의회에 진출한다. 衆議院事務局編(1940) 『第一乃至第二十回總選舉 衆議院議員略歴』(『政治家人名資料事典』 第1卷, 日本圖書センター, 2003년으로 復刊), p.143

22) 구스모토(남작)는 1838년생으로 나가사키 재판소 판사, 니가타 현(新潟県) 현령, 도쿄 부(東京府) 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네 번(1~4회, 도쿄 부) 당선된 경력이 있다. 오자키는 1859년생으로 문부대신, 사법대신, 도쿄시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무려 스무 번(1~20회, 미에 현[三重県])이나 당선된 경력의 거물급 인사였다. 스에히로는 1849년생으로 대장성 출신으로 도쿄아케보노 신문(東京曙新聞), 아사노 신문(朝野新聞), 간사이 일보(関西日報) 등의 신문기자를 지냈다.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두 번(1, 4회, 에히메 현[愛媛県]) 당선되었다. 衆議院事務局編(1940), 위의 책, p.88, p.164, p.231

조직의 필요성과 아마구치 현의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1896년 현 내에 메이지세이샤(明治政社)라는 政治結社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1900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세이유카이(政友會)를 창립하자 메이지세이샤를 해산하고 조직을 그대로 세이유카이에 흡수시켰다.²³⁾ 그런 가와키타가 노르웨이식 포경회사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벨기에 유학시절에 이미 노르웨이식 포경업에 대해 聞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아마구치 현의 수산주임 후지타 모리마사(藤田守正)는 1897년 4월에 제2회 韓海漁業調査를 위해 동해에 출장하였다가 우연히 태평양포경회사의 조업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출장에서 돌아온 그는 아마구치 현의 포경업자들에게 동해 포경업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해 어업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아마구치 현의 실업가들이 노르웨이식 포경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마다 도사쿠(山田桃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다. 오쓰 군(大津郡)의 자산가였던 야마다는, 같은 군의 사토 진키치(佐藤甚吉) 등이 계획한 포경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사업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었는데, 가와키타의 권유로 포경회사의 共同起業에 합의하였다. 또한 가와키타는 아마다의 친척인 자산가 나카무라 스케에몬(中村助右衛門) 및 오카 주로(岡十郎), 그리고 하기(萩)의 은행가 니시무라 분사쿠(西村文作)를 소개받고 각각 포경업에 투자와 참가를 권유하였다. 여기에 당시 중의원 의원이던 다케히로 노리미치(武弘宜路)와 미와 덴시치(三輪伝七)가 동 사업에 찬성하며 발기인으로 결합하였다.²⁴⁾

23) 井関九郎編(1917) 『現代防長人物史』地, 發展社, pp.57~58

24)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明治期 日本捕鯨誌』(1989년에 マツノ書店에서 復刻), pp.196~197

〈표1〉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의 발기인 및 주요 경력

| 이름 | 주요 경력 | 설립 후 역명 |
|--------|---|-----------|
| 山田桃作 | 村会·郡会·県会 議員, 萩銀行(취), 東洋漁業株式会社(취), 大韓勸農株式會社(사), 중의원 의원(10) | 사장 |
| 河北勘七 | 벨기에 브뤼셀 대학 박사, 日本齒磨製造株式会社(취), 株式會社第一百銀行(감), 山陽電氣株式會社(취), 小野田セメント株式會社(사), 중의원 의원(4, 6) | 취체역 |
| 西村文作 | 萩의 은행가 | 취체역 |
| 岡十郎 | 慶應義塾 출신, 県会 議員, 山口県通漁組合長. 農商務省 囑託, 東洋漁業株式會社(전), 朝鮮海水産組合長, 東洋捕鯨株式會社(사), 株式會社防長銀行(취), 防長漁業株式會社(취), 朝鮮勸農株式會社(취, 사) | 상무 취체역 |
| 中村助右衛門 | 素封家 | 취체역 |
| 武弘宜路 | 육군 대위, 村会·郡会·県会 議員, 중의원 의원(2, 5, 6) | 감사역 |
| 三輪傳七 | 村会·郡会·県会 議員, 県会 議長, 소득세 조사위원, 농회 부회장, 酒造業 경영, 朝鮮勸農株式會社(감), 중의원 의원(2, 5, 6, 9) | 감사역 |

출전 : 衆議院事務局編(1940) 『第一回乃至第二十回總選舉 衆議院議員略歷』(『政治家人名資料事典』 第1卷 ; 井関九郎編(1917) 『現代防長人物史』 天・地・人, 發展社 ; 絹の道の会(1994) 『しものせき・人・物語(五)』

비고 : 일본원양어업이 설립될 때의 중의원 총선거는 제6회로 임기는 1898년 8월부터 1902년 8월까지였다.

요컨대, 대외강경주의자였던 가와키타가 포경업을 내세운 러시아의 동해 진출 및 제해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노르웨이식 포경업을 담당할 포경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했던 야마구치 현의 정치가와 자산가들이 결합하였던 것이다.²⁵⁾

그러나 1899년을 전후한 일본 재계는 청일전쟁 후의 급속한 팽창으로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탓에 확실하고 견고한 사업이라도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일본에 막 도입되기 시작한 노르웨이 포경업의 모험적인

25) 木村健二의 연구에 의하면, 1896년 현재 한국 재류 일본인의 본적별 분포에서 야마구치 현(山口県)(27.8%)은 나가사키 현(長崎県)(30.3%)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두 현이 전체 한국 진출자의 약 60%를 내고 있었다. 木村健二(1989)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p.14.

성격 때문에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의 융통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 설립을 주도하였던 야마다, 가와키타, 오카 3인이 자금모집을 위해 도쿄로 상경, 당시 일본 정재계 및 군부에 군림해 있던 이토 히로부미나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를 비롯한 야마구치 현 출신자들의 지원 하에 자금모집에 성공, 결국 1899년 7월에 일본원양어업을 설립할 수 있었다.²⁶⁾

한편, 발기인들은 노르웨이식 포경업이라는 새로운 포경법에 대해 문의한이었고, 따라서 포경업에 대한 조사나 회사 설립 후의 경영방침에 대해 전망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이 문제는, 오카가 러시아 포경회사와의 계약 만료로 당시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던 노르웨이인 포수 피터슨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로부터 설립과 경영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르웨이식 포경선과 포경용구도 문제였다. 아직 노르웨이식 포경선에 관한 정보는커녕 모형조차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듯, 일본 포경선 건조 기술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발기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시나가와와 오카가 국외(노르웨이)에서의 포경선 건조를 주장한 반면, 가와키타는 국내 건조를 주장하였던 것인데, 1899년 겨울 포경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1899년 6월에 발기인들 명의로 도쿄 이시카와지마 조선소(東京石川島造船所)에 船價 4만 7천원으로 新船 건조를 발주하였고, 회사 설립 후인 동년 10월에 진수식을 거행하고 다이이치조슈마루(第一長周丸, 이하 조슈마루로 줄임)라 명명하였다. 포경용구는 미쓰이 물산(三井物産)에 의뢰하여 수입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²⁷⁾

어느 정도 회사 설립의 윤곽이 잡히자, 오카는 전부터 위촉받고 있던 농상공부 축탁의 신분을 이용하여 직접 노르웨이로 건너가 포경선 및 포경용구 제작

26) 그러나 長州 출신이 처음부터 모두 찬성하고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産業組合 설립 운동으로 유명한 자작 品川彌二郎(1843~1900) 같은 이는, “백성은 백성의 본분을 지켜 보리밥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필자) 말하는 방법으로 백성이 고래(鯨)를 잡을 수 있다면 過分하지만 내 生首(목을 벤 직후의 머리:필자)를 드리겠다”고 무책임하게 放言하여 品川彌二郎를 찾아 간 발기인들이 아연한 얼굴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p.374. 品川彌二郎에 대해서는, 奥谷松治(1940) 『品川彌二郎伝』, 高陽書院을 참조.

27) 명명한 이가 品川彌二郎였다고 하니, 일본원양어업이 설립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듯하다. 井関九郎編(1917), 위의 책 天, pp.374~375 ;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앞의 책, p.205

을 견학하고 포경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업 실황을 조사한 뒤 12월에 귀국하였다. 歸途에는 대서양 및 미국의 동북해안의 포경업도 순시하였다. 그의 外遊는 노르웨이식 포경업이 막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에 그 경영법을 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²⁸⁾

일본원양어업의 창립총회는 오카가 노르웨이에 체재하고 있던 1899년 7월에 개최되어 정관 의결 및 중역 선출 등의 창립사무가 이루어졌다. 본사는 야마구치 현 오쓰 군 센자키 항에 두고 출장소를 시모노세키 시(下関市)에 두기로 했다. 중역에는 사장에 야마다 도사쿠, 상무이사에 오카, 이사에 가와키타 간시치, 니시무라 분사쿠, 나카무라 스케에몬, 감사에 다케히로 노리미치, 미와 덴시치가 각각 취임하였다.²⁹⁾ 자본금은 10만 원(2만 5천원 불입)이었으며 주식은 200주(1주 500원)였다.³⁰⁾ 창립총회에서는 한국 포경특허 출원의 건은 중의원 의원으로 일본원양어업의 이사를 겸하고 있던 가와키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는 점도 후술 내용과 관련하여 지적해 두고 싶다.³¹⁾

2. 동해 포경특허 취득과 일본 근대 포경업의 전개

창립총회에서 한국 포경특허에 관한 교섭을 전담하게 된 가와키타는, 먼저 1899년 9월 5일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교섭 개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주재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포경특허를 출원하였다.³²⁾ 그러나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 포경업에 본격적

28)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p.205~206

29)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天, p.375

30) 당시 일본의 新商法에 의한 社名은 捕鯨株式會資會社였으며, 개인 출자자(주주)는 다음과 같았다. 山田桃作(17,500원), 岡十郎, 河北勘七, 中村助右衛門(이상 10,000원), 市村貞雄, 中村利亮(이상 4,000원), 大島新藏(3,500원), 西村又作, 南野市太郎, 田村四郎, 須子龜松, 上田寧二(이상 3,000원), 西村吉右衛門(2,500원), 瀧口吉良, 武弘宣路, 三輪傳七, 村岡重吉(2,000원), 福江秀助, 宇野政輔, 片山國忠(1,500원), 村岡松藏, 森沢雄輔, 藤田守正, 山本重弘, 大谷與兵衛(이상 1,000원) 絹の道の會(1994), 앞의 책, p.29

31)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206

32) 일본은 朝日通商章程(1883.7.25) 第41款에 의해 韓海通漁權을 획득하였지만, 시행세칙의 성격은 띤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1889.11.12) 제4조에 의하면 漁業許可를 받은 어선이라도

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신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1899년 3월경부터 러시아에 의한 군항 설치 계획이 유포되고 있었고,³³⁾ 실제로 러시아가 1899년과 1900년 상반기까지 거제도과 마산항 부근의 토지를 차입하고자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주재 일본공사관에서는 이를 저지하고자 갖은 공작을 계획하였는데,³⁴⁾ 오키의 일본원양어업이 한국 정부에 포경특허를 출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후술하듯, 일본 정부와 한국 주재 일본공사관이 일본원양어업의 포경특허 취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발 벗고 나선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즉, 포경업을 내세운 러시아의 동해 제해권 장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포경회사의 동해 진출이 필요했고, 그 전제가 되는 포경특허의 취득이 불가결했던 것이다.³⁵⁾

하야시는 10월 2일 러시아와의 기회균등주의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포경특허를 강요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하야시에게 특별한 언급 없이 포경특허가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하야시는 불가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강력히 항의하고, 만약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국에 상신하였다.³⁶⁾ 그 후에도 한국 정부가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자, 하야시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포경특허 조항 중 특히 일본을 견제하여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을 들어 허

特許를 받지 않는 한 領海捕鯨이 금지되어 있었다. 「兩國漁船 雖領有業准單者 非得特准 則不准於兩國海濱三里以內 捕獲鯨鯨」朴九乘(1970), 앞의 글, pp.6~7

33) 1899년 3월 8일, <러시아의 巨濟島와 馬山港 부근 軍港 건설 계획설>, 『馬山浦 土地租借 및 巨濟島 不割讓에 관한 露韓約定 一件』 제1권. <http://e-gonghun.mpva.go.kr>(검색일: 2007년 6월 26)

34) 러시아의 군항 설치 계획을 저지하고자 하는 靑木周藏과 林權助 사이의 왕복문서는 공훈전자자료관(<http://e-gonghun.mpva.go.kr>)의 원문정보를 참조했음.

35) 1899년 4월 13일 외무대신 靑木周藏은 在韓特命全權公使 加藤增雄에게 송부한 機密送20號에서 日本帝國政府는 러시아가 捕鯨基地로 租借한 '이 機會를 틈타 日本漁業者가 使用한다는 名目으로 實際로는 日本陸海空軍이 使用할 土地를 租借해야겠다고 하여 同機密文書에 첨부한 約定案대로 土地租借交渉을 전개하라고 訓令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韓國ニ於テ捕鯨業ノ為メ土地借入ニ關スル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99년. 朴九乘(1970), 앞의 책, p.30에서 재인용.

36) 1899년 11월 22일, <(77) 捕鯨特許에 관한 件>, 國史編纂委員會(199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4권.

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의무대신 아오키에게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한국 근해에서 포경업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³⁷⁾ 하야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육지의 사용만 자제한다면, 일본 영내에서 일단 허가한 뒤 조업을 한국 근해까지 확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³⁸⁾ 그만큼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오키는 일단 한국 및 러시아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단 일본원양어업으로 하여금 한국 영해 밖에서 제한적으로 조업하도록 조치하였다.³⁹⁾

하야시의 일시 귀국과 함께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포경특허 교섭은 1900년 1월에 하야시가 다시 귀임하면서 2월부터 재개되었다. 이때는 이미 가와키타가 부진한 특허 교섭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서울로 건너와 체재하고 있었다. 가와키타는 하야시에게 고종을 알현할 수 있도록 알선을 청하였고, 2월 3일에 하야시와 함께 고종을 알현할 수 있었다.⁴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하야시 공사의 태도와 얼마 후인 2월 14일에 내려진 일본원양어업에 대한 포경특허를 고려한다면, 포경특허의 허가를 요구하며 고종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때 포경특허 허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⁴¹⁾

大韓國政府는 大日本遠洋漁業株式會社の 河北勘七에게 通漁章程 第四條에 의거하여 捕鯨을 特准하고 條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開列한다

第一條 通漁章程에 載明議定한 地方의 現在 情形을 參酌하여 全羅 一道를 제외한 慶尙 江原 咸鏡 三道의 海濱 三里 以內를 特定捕鯨區域로 한다

第二條 光武 四年 二月부터 卅 七年 二月에 이르는 滿 三箇年을 定限으로 한다 단, 滿期 後에는 다시 商議하여 만약 未准할 理由가 없으면 계속 시행해야 한다

第三條 特准期間의 稅金은 機械船 一隻에 대해 一箇年에 銀貨 八百元으로 하고 每年三月(光武 四年 三月부터 시작한다) 該會社에서 大韓國 東萊監理에게 送

37) 1899년 11월 30일, <(82) 捕鯨特許에 관한 件>, 國史編纂委員會(1995), 위의 책.

38) 1899년 12월 6일, <(85) 捕鯨特許 件>, 國史編纂委員會(1995), 위의 책.

39) 1899년 12월 2일, <(36) 捕鯨特許 件>, 國史編纂委員會(1995), 위의 책.

40) 井関九郎編(1917), 앞의 책 地, p.58

41) 韓國政府가 1900년 2월 14일 日本遠洋漁業會社에 포경특허를 허가하면서 작성한 것을 外部에서 옮겨 적은 准單의 내용이다. 당시 일본에 부과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00년 2월 14일, <日特准捕鯨區域准單>, 奎23042.

交하여 政府에 轉納하게 한다 단, 該會社가 滿一箇年 동안 鯨業에 着手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미리 大韓國 東萊監理에게 告知하여 政府에 轉詳케 해야 하며 年稅는 특별히 면제한다

第四條 該會社가 每年 捕鯨에 着手할 때는 機械船의 隻數와 船名 그리고 船員의 姓名을 詳細하게 開列하여 미리 東萊監理에게 告知하여 政府에 轉詳하게 해야 한다 단, 船隻가 增加할 때는 每一船의 年稅는 第三條에 의거하여 施行한다

第五條 該會社의 事業船隻은 例規噸稅 및 特准稅金 이외에 所獲의 鯨魚에 대해서는 특별히 海關稅를 면제한다

第六條 沿海地方官은 該會社 所屬의 船隻 및 船員까지 보호해야 한다

이상의 3년간 6개조의 특허약관을 얻기는 했으나, 1899년 3월에 조인된 러시아의 그것이 12년간 20개조였음을 생각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²⁾ 특허기간과 약관 내용의 차이는 당시 양국이 한국 정부에 미치고 있던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원양어업이 창업 전 야마구치 현에 출원하여 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령을 받고 있었던 것도, 동해 포경특허 취득이 무산될 경우를 감안하여 일본 국내의 허가만으로 조업을 시작하려고 했음을 짐작케 한다.⁴³⁾

明治三十二年(1899년;역자) 十二月 十四日、四丁第五四四号

明治三十二年 十二月 四日에 청원한 韓國沿岸 參海里 以外 및 本邦 各 沿岸 拾海里 以外 지역으로 在來 捕鯨場이 아닌 海面에 있어서 諾威式砲殺捕鯨特許의 件에 대해 승인한다

단, 事業上에 使用하는 船舶의 種類, 噸數, 船長, 船幅, 艇數, 乘組員, 銃砲種類, 捕鯨方法 등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42) 노르웨이식 포경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태평양포경회사가 설립되고 동해안에서의 포경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러시아는 捕鯨基址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더구나 捕鯨基址 租借契約을 추진하기 시작한 1897년 3월은 俄館播遷 직후로 韓廷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최고에 달했던 때였다. 1898년 12월에는 불법 조업을 이유로 元山海關이 태평양포경회사 포경선단 일부를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포경기지 조차계약을 성립시켰다. 1899년 3월 29일의 일이었다. 자세한 것은, 朴九秉(1970), 앞의 글, pp.11 ~29. 계약 내용은 <(1) 카이젤링 伯爵과의 捕鯨特許 協定文>, 國史編纂委員會(1995), 위의 책.

43)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p.207~208

실제로 일본원양어업은 포경특허 취득 전인 1900년 1월 28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부산 세관과의 협의를 거쳐 포수 피터슨의 명의로 조업에 착수하였다. 포수의 명의를 빌린 것은 아직 포경특허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조업지역이 제한되기는 했으나 포경특허와 상관없이 조업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포경특허를 취득한 뒤 오키는 조슈마루 이하 전 선단을 이끌고 울산만을 선회하며 부근에서 총 6두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시모노세키에서의 경육 판매가 양육저장고의 화재로 실패하면서 일본원양어업의 제1기 영업성적은 12,628원의 손실로 끝났다.⁴⁴⁾ 회사 개업 후 포경 가능 기간이 불과 세 달 정도에 불과했던 것도 손실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였다.

제2기에도 조슈마루의 잦은 고장과 거듭된 악재로 경영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1900년 11월초부터 12월 27일까지 원산, 장전, 신포 부근에서 23두를 포획하였고, 1901년 3월초부터 5월 25일까지 영일만 부근에서 12두를 포획하여 총 35두의 어획고를 올렸다. 그 결과, 제2기 영업성적은 총 42두를 포획하여 초기의 결손을 상각하고 5%의 배당이 가능하였다.⁴⁵⁾ 이 사이 일본원양어업은 오사카(大阪)에서 운반 기선 보초마루(防長丸, 목조)를 22,500円에 구입하여 부족한 기동력을 보완하였다.

한편, 당시 동해포경어장에는 일본원양어업 이외에도 포항을 중심으로 조업하던 카이젤링 백작의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 그리고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영러인포경조합⁴⁶⁾이 다음의 <표2>와 같이 삼분하고 있었다. 일본원양어업이 가장 후발 주자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경육 판매에서는 태평양포경

44) 그후 울산에서 4월 30일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7頭를 더 포획하기 했으나, 동해에서의 포경철이 끝나버려 시모노세키(下関)로 선단을 引揚해 버리고 만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p.210~211

45)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212~213

46) 同 조합은, 露領 사가관 제주의 영국인 덴비를 중심으로 러시아인 세메노프와 나가사키(長崎) 채류 영국인 링거, 세 명이 조직하였다. 이들은 長崎의 홈 링거 상회를 대리점으로 하여 1897년 起業 계획을 세우고, 노르웨이 아카스 조선소에 포경선 건조를 의뢰하여 1898년 11월부터 동해에 出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同 조합은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와 달리 한국 정부의 포경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1900년 2월 세메노프가 漢城에 들어가 포경특허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대신 元山 및 釜山 세관과 협의한 끝에 港內 일부 지역에서의 解剖 허가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不漁로 인한 영업악화로 1901년 10월 日本遠洋漁業에 주 사업선인 오르가 號를 임대함으로써 同조합의 포경업은 폐지되고 만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191~192

회사보다 유리한 입장이었다. 일본원양어업이 일본에 판매할 경우는 국내 판매였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될 이유가 없었지만, 태평양포경회사의 경우는 국의 수출이었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1901년부터는 영리인포경조합이 영업악화를 이유로 홈링거상회를 통해 포경선 오르가 호를 일본원양어업에 轉貸하고 포경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⁴⁷⁾ 1901년부터는 동해어장을 둘러싸고 태평양포경회사와 일본원양어업이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표2〉 동해포경어장 3社의 포획고

| 會社名 | 年度 | 捕獲頭數 | 平均頭當價格(圓) | 총가액(圓) |
|-----------|------|------|-----------|----------------|
| 太平洋捕鯨會社 | 1899 | 159 | 900 | 143,100 |
| | 1900 | 116 | 1,000 | 116,000 |
| | 1901 | 114 | 1,200 | <u>136,800</u> |
| 日本遠洋漁業(株) | 1900 | 15 | 1,500 | 22,500 |
| | 1901 | 42 | 1,582 | <u>66,444</u> |
| 英露人捕鯨組合 | 1900 | 27 | 1,000 | 27,000 |
| | 1901 | 34 | 1,200 | 40,800 |

출전 : 岡庸一(1905) 『最新韓國事情』, pp.255~256. 朴九乘(1970), 앞의 글, p.41에서 재인용.
비고 : 총가액 중에서 밑줄 부분은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영리인포경조합으로부터 사업선과 해부선을 차입한 일본원양어업은 1901년 10월 장전을 기지로 한 동해 포경에서 한 때 좋은 성적을 보이기도 했으나,⁴⁸⁾ 동년 12월 주사업선인 조슈마루가 침몰함으로써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원양어업을 더욱 위태롭게 한 것은, 동해 포경에 동원된 선박들이 무보험이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는 일본원양어업에 거의 공황상태와 다름없는 치명상을 입혔다.⁴⁹⁾ 조슈마루의 침몰은 비단 일본원양어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르웨

47) 이러한 內報를 접한 일본원양어업은 포경선 長州丸의 잦은 고장을 보완하기 위해 차입계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901년 10월 3일에 長崎에서 오르가 號 備船契約을 8개월 만기(1개월 임대료 5천 원)로 홈링거 상회와 체결하였다. 동시에 동조합의 해부선 廣盛丸(登簿톤수 158톤)도 역시 부대차입하였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215~216
48) 1901년 10월 19일 도착한 이후 40여 일간의 조업으로 借入船 오르가 호는 11頭를, 長州丸은 23頭를 포획하는 등 창업 이래 미증유의 성적을 올렸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17
49) 이에 일본원양어업은 상무 岡十郎을 중심으로 총 1만 6천여 원의 비용을 들여 3회에 걸쳐

이식 포경을 도입한 일본 포경업의 근대화가 동해포경어장이라는 시험무대에서 좌절할 경우, 그것은 러일 간 포경전에서 패퇴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⁰⁾

이에 오카를 비롯한 일본원양어업의 경영진은 1902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선주의 모집을 통한 자본금 10만 원의 증자를 결의하였으나, 노르웨이 식 포경업에 대한 비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5월까지도 불입에 응하는 주주는 거의 없었다. 다시 5월 15일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오히려 해산론이 등장하는 사태로까지 발전, 결국 제1회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증자안은 취소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조난구제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반선인 보초마루를 매각하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⁵¹⁾ 따라서 보초마루 매각 후 남은 일본원양어업의 재산은 해부선 지요마루(千代丸)와 한국 동해포경에 관한 특허권에 불과했다. 사업선(포경선), 해부선, 운반선이라는 체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짜임새 있는 포경업이 가능한 것인데, 일본원양어업의 경우는 사업선인 조슈마루가 침몰된 채 인양이 여의치 않은데다 자금경색으로 운반선 보초마루까지 매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부선인 지요마루만으로는 도저히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카를 비롯한 일본원양어업의 경영진은, 자사 소유 포경선 조슈마루의 인양작업과는 별도로 備船契約을 늘려 부족한 사업선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먼저 1902년 6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오르가 호의 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슈마루의 인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오르가 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은 당연했다. 아울러 당시 나가사키에 회항해 있던 노르웨이 렉스 회사의 최신식 포경기선 렉스 호의 용선계약도 체결하였다. 이때 일본원양어업은 계약을 희망하던 다른 경쟁자를 특허권 보호라는 타협안으로 물리치고 렉스 사와의 용선계약에 성공하였는데, 계약조건은 오르가 호와 같았

인양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이 제작한 최초의 노르웨이식 포경선인 第一長州丸의 최후였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18

50) 1901년 長崎捕鯨組가 설립되어 동해에 출어한 일이 있다고 하나, 정식 捕鯨權이 없었고, 사업선 또한 木造船에 불과했기 때문에 완전한 노르웨이식 포경선이라고 할 수 없었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22

51)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24

다.⁵²⁾ 또한 렉스사에서 새롭게 건조 중이던 렉스 호의 자매 포경기선 레나기 호의 용선도 예약해 두었다.⁵³⁾ 바야흐로 일본 노르웨이식 포경업의 용선시대가 열린 셈이었다. 그 결과, 1903년 6월부터 1904년 5월말까지 총 101두를 포획(오르가 호 16두, 렉스 호 48두, 레나기 호 37두)하여 연 17%의 이익배당을 기록함으로써 창립 후 최고의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⁵⁴⁾

그러나 이 시기 경영성적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포경특허가 1903년 2월로 만료되기 때문이었다. 특허가 만료될 경우 모처럼 체결한 홈링저상회 및 노르웨이 렉스사와의 용선계약도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포경 특허의 기간 연장은 일본 근대 포경업의 다른 이름인 노르웨이식 포경의 정착과 관련해서도 중요했다. 오카가 직접 한국 한성으로 건너가 연장 교섭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일본원양어업의 상무 오카가 포경 특허의 연장을 위한 교섭에 나선 것은, 만기가 아직 반년이나 남은 1902년 8월이었다. 그만큼 포경 특허의 연장에 필사적이었던 것이다. 오카는 약 20여 일 동안 체재하면서 특허 약관 제2조 ‘滿期後에는 다시 商議하여 만약 未准할 理由가 없으면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특허의 갱신과 기지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을 한국 정부에 청원하고 관계 방면의 유력자들을 歷訪 具陳하였다. 오카는 1903년 1월에도 渡韓, 약 60일이라는 장기간을 체재하며 특허 갱신 교섭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와 이권 항유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강조하였다. 그 결과 오카는 귀국 단계에서 주한 일본공사관의 公電을 통해 특허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과, 특허 약관의 구체안에 대한 협의는 총세무사에게 지시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52) 이때 다른 경쟁자 중 유력한 곳으로 長崎捕鯨組合이 있었는데, 렉스 號 차입과 관련하여 同 조합과의 사이에 타협안 성립하였다. 즉, 同 조합 소속의 初鷹丸이 日本遠洋漁業의 특허권의 보호를 받으며 동해에 출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렉스 號가 포획한 捕鯨의 반수를 매입 한다는 조건이었다. 또한 同 조합에서 오르가 號의 용선계약 讓受를 교섭해 오자, 日本遠洋漁業은 1902년 9월 同 조합에 오르가 號의 용선계약을 인계하고 역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해 주었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229

53)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25. 실제 레기나 號의 傭船契約은 1903년 9월에 이루어졌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26

54)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27

55)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30~231

그러나 용암포사건⁵⁶⁾을 계기로 촉발된 러일 간의 관계악화 및 전쟁직전의 교⁵⁷⁾로의 전개로 약정안의 협의는 6개월 뒤에야 착수되었고, 수차례의 절충을 거듭한 뒤 1904년 1월 11일에야 새로운 특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때의 계약은, 12개년의 장기특허로 약관이 20개조에 달하여 러시아의 카이젤링 백작이 1897년에 취득했던 특허와 동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특허 갱신으로 동해에 있어서 일본 포경업의 이권을 비로소 명확히 확립 확장했다’는 평가는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⁵⁸⁾ 1904년 1월의 특허 갱신은 당시 한국을 둘러싼 러일 간의 경쟁에서 러시아가 쇠퇴하고 일본이 浮上하였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동해포경어장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이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3. 러일전쟁과 일본 근대 포경업의 정착

1904년 2월 6일 러일 간의 외교 단절, 2월 8일 러시아의 여순함대(제1태평양 함대)에 대한 기습공격, 일본군의 인천상륙, 2월 9일 인천 외항에서의 교전 등으로 실질적인 전쟁상태에 들어간 일본은,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나가사키 항 등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태평양포경회사의 포경선단을 모두 노획해 버렸다. 운반기선 알렉산더 호는 나가사키 현의 쓰시마·이즈하라 항에서, 운반범선 레스니 호는 나가사키 항에서 각각 나포되었고, 해부처리기선 미하일 호와 사업선 니콜라이 호는 한국의 장전항(長箭港) 기지를 떠나 항해하던 중 일본 군함 미야코(宮古)에 의해 노획되었으며, 출어 중이던 사업선 기요르기 호만이 상하이(上海)로 탈주하여 나포를 면할 수 있었다. 이들 선박들에 대한 심사 결과 알렉산더 호의 해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획이 확정되었다. 러시아의 전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⁹⁾

56) 용암포사건에 대해서는, 현광호(2007) 「대한제국기 용암포사건에 대한 일본공사관의 대응」 『인문학연구』 34-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참조.

57) 김원수(1997) 「露日戰爭의 原因에 對한 再檢討」,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8)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231

59)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32

오카는 이러한 상황을 부족한 사업선을 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1904년 3월에 곧바로 해군 대신 및 농상무 대신에게 노획선의 貸下를 출원했다. 그러나 노획선의 대하를 요구한 것은 오카만이 아니었다. 당시 중의원 의원이던 시마즈 요시토모(島津良知), 후쿠시마 기조(福島宜三), 우치야마 요시타(内山吉太), 마쓰오 간조(松尾寛三) 등 14명도 연합으로 일한포경주식회사(日韓捕鯨株式会社, 이하 일한포경으로 줄임)를 발기하고 동사의 이름으로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하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만큼 포경업은 유망한 사업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노획선의 소관을 농상무성으로 전속시키고, 당시 농상무성 대신 마쓰오카 야스타케(松岡康毅)와 수산국장 마키 보쿠신(牧林真)을 중심으로 동년 5월까지 중재한 끝에 전국 新舊 포경업자의 합동단체에 貸下한다는 방침을 양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오카는 중의원 의원들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의 신규 포경업자들을 규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러일전쟁 중이라는 사실과 노르웨이식 포경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국 포경업자의 협조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양측만의 합동으로 귀결되었다. 더구나 중의원 의원들의 일한포경은 아직 정식을 발족한 회사가 아니었던 탓에 합동은 일본원양어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⁶⁰⁾ 이상이 동양포경이 설립된 배경이며, 러시아 노획선이 동사에 대하된 것은 물론이었다.

1904년 10월 23일 합병 설립된 동양어업의 자본금은 50만 원(불입 25만 원)으로, 주식의 인수는 일본원양어업 측과 일한포경 측이 6 대 4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일본원양어업 측의 포경업 관련 일체의 설비와 적립금 그리고 기타 채권을 5만 원으로 한국포경특허권과 토지조차권을 10만 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불입자본금의 3분의 2인 15만 원을 충당하기로 하였고, 일한포경 측의 분담 주식 불입금 10만 원으로는 새로운 사업선 한 척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동양어업은 당장 사업선으로 용선 2척과 정부 노획선 3척을 운용할 수 있었다.⁶¹⁾ 중역 또한 양측에서 선임되었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전무이사에는 오카가 취임하

60) 岡十郎과 중의원 의원 14명 사이의 합동계약은 1904년 9월 22일 東京에서 성립하였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234~235

61) 발기인총회는 1904년 10월 5일 東京에서 열고, 창립총회는 시모노세키(下関)에서 개최되었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35

였다.⁶²⁾

요컨대, 동양어업은 노획선 대하를 위해 일본원양어업이 발기 단계에 있던 일한포경을 합병 신설한 회사였던 셈이고, 노획한 러시아 포경선단의 보강은 일본에 의한 한국 동해포경어장 독점이라는 결과와 함께 일본 근대 포경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직변경 직후부터 1905년 7월까지 160두를 포획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조직변경 전의 85두를 합하면 당기의 포경 실적이 총 245두에 달했다. 당기 결산 결과 18%의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1905년 6월에는 나가사키 포경조합회사(長崎捕鯨合資會社)의 사업선 오르가 호를 구입하였다.⁶³⁾ 아직 러일전쟁의 와중이었으나 일본 해군의 동해 해상권 장악과 경쟁상대인 러시아 포경선단의 전멸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러나, 오키와 동양어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러시아 카이젤링 백작의 한국포경특허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고, 따라서 러일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에서 同 특허권을 내세우며 동해 포경을 주장할 경우 계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오키의 주목을 끈 것이 러시아의 포경특허 조항 중 다음에 인용되는 제11조였다.

제11조 앞서의 3개 지역에 대한 연간 地代로 카이젤링 백작은 서울의 大韓 정부에게 매년 450圓을 先納하는 데 동의한다. 언급된 地代의 첫 번째 납부는 계약의 체결 시에 大韓 外部에게 납부하게 되며 그 후에는 이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매년 동일한 일자에 地代를 外部에 납부한다. 만일 카이젤링 백작이 이 계약의 규정처럼 납부 기일이 된 후 1년간 전기 납부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명시하였듯이 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상실되고 무효가 되며, 大韓 정부가 위의 3개 지역과 그곳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 기계류와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차지하고 이들을 소유하게 된다. 단 카이젤링 백작이 그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납입 만기가 되었거나 만기가 될 12년간의 모든 만료일까지의 地代와 이자의 전체 금액을 납부하면 백작은 그의 건물과 기계류를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언급하였듯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의 모든 건물과 기계

62) 다른 중역진들은 다음과 같은데, 중역진의 선정에 농상무 대신이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山田桃作, 內山吉太, 河北勘七, 島津良知, 武弘宜路, 福島宜三(이상 취체역), 中村利亮, 松尾寛三, 三輪傳七(이상 감사역).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35

63)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앞의 책, pp.236~237

류는 몰수 되어 대한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만일 지대의 납부 만기가 될 때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때까지 매월 15퍼센트의 비율로 이자를 부담한다.⁶⁴⁾(밀줄 인용자)

오키는 러시아 포경회사가 러일전쟁의 개전으로 1904년 3월 27일의 납기일에 선납하지 못했음에 주목했던 것이다. 러일전쟁 기간 동안에 프랑스 공사가 한국 내 러시아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전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동안 한국 정부(外部)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이었다. 이에 오키는 1905년 3월에 한국으로 건너가 1년이 경과되는 3월 29일을 기다려 곧바로 일본공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카이젤링 백작과의 특허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러시아 포경회사가 조차하고 있던 蔚山, 長箭, 新浦의 세 포경근거지 조차를 외부에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4월 10일 카이젤링 백작의 포경특허계약이 失效되었음을 프랑스공사에게 통지하고, 위의 세 포경근거지를 모두 동양어업에 특허하는 추가계약을 오키와 체결하였다.⁶⁵⁾ 이후 한국 동해포경어장은 동양어업의 독점 하에 놓이게 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노르웨이식 포경을 도입한 일본원양어업(동양어업)이 동해에서 성공하기 전까지 일본의 근대 포경업은 주로 한국 동해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 신기술이 검증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前記했듯이, 다른 전국의 신규 포경업자들이 노르웨이 포경을 채택한 일본원양어업 중심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동해포경어장이 노르웨이식 포경의 시험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러시아와 벌인 포경전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격변이라는 배경 때문에 다소 모험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굳이 한국 어장에만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일본에도 각 연안에 유명 포경어장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태평양 방면에 있는 미야기 현(宮城縣), 지바 현(千葉縣), 와카야마 현(和歌山縣), 고치

64) <(1) 카이젤링 伯爵과의 捕鯨特許 協定文>, 國史編纂委員會(1995), 위의 책.

65)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38. 구체적인 조약내용은, <韓國政府와 日本遠洋漁業會社間의 鯨魚事業特許契約 一部를 變更하는 契約>, 奎23117.

현(高知県)의 연해는 지세와 조류 관계로 고래 무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다. 1906년 2월에 오르가 호를 한국 동해포경어장에서 빼내 나가토 센자키로부터 태평양 보소(房総) 방면 어장으로 옮기고, 니콜라이 호를 동년 5월에 보소 방면에서 긴카산 어장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어장 확대 및 재배치의 일환이었다.⁶⁶⁾ 그 결과 미야기현의 아유카와(鮎川) 사업장, 지바현의 조시(銚子) 사업장과 다테야마(館山) 출장소 등이 생기고 오르가 호와 니콜라이 호가 廻航하면서 111두를 포획하여, 한국 동해에서 포획한 292두를 포함하여 총 430두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급량의 증가와 더불어 시모노세키와 규슈(九州) 방면에 있어서 경육 수요의 증가는 한국 동해의 포경어장을 독점한 동양어업이 일본 각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해당 기에 태평양 방면으로 투자를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순익이 31만 1천 9백여 원에 달하여 13만 3천원의 적립금을 제하고도 연 50%의 배당이 가능했다.⁶⁷⁾

동양어업은 한국 동해 포경어장의 독점과 러일전쟁 후의 호황에 힘입어 사업을 더욱 확장하였다. 1906년 6월 노르웨이 아카스 조선소에 포경선 2척(이카즈치마루와 이나즈마마루)의 新造를 발주하고, 태평양 방면의 사업장을 늘려 와카야마 현의 오시마(大島) 사업장, 도쿠시마 현(徳島県)의 시시쿠이(宍喰) 사업장, 고치현의 시미즈(清水) 사업장 등의 개설에 착수하였다.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 동원의 필요성에서 1906년 10월 23일에는 자본금을 50만 원(불입 25만 원)에서 200만 원(불입 50만 원)으로 증자하고, 노르웨이에 발주한 선박 이외에 신식 포경선 아케보노마루(曙丸)를 추가 구입하였다. 따라서 동양어업 증자 후의 사업선은 렉스 호, 진구마루(神功丸), 오르가 호, 니콜라이 호, 아케보노마루, 이카즈치마루, 이나즈마마루의 7척으로 크게 늘었고, 이들 사업선을 장전과 울산 등의 한국 방면 이외에도 고치, 와카야마, 지바, 미야기 등의 태평양 방면 어장으로 분견하여 1907년 7월말의 결산기까지 총 633두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때에도 역시 54%의 배당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12원 50전 불입의 주식의 時價가 50원대에서 90원대로 급등한 것도 이때였다.⁶⁸⁾ 그 사업장 및 포경선 별 실적은 <표3>과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

66)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위의 책, p.242

67)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위의 책, pp.244~245

데, 한국 동해어장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노르웨이식 포경이 1906년과 1907년 사업기를 거치면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된다.

〈표3〉 사업장 및 포경선 별 포획고(1907년 7월말 결산, 단위:頭)

| 船名 | 韓國 | 鮎川 | 銚子 | 大島 | 甲浦 | 合計 |
|--------|-----|----|----|-----|-----|-----|
| 렉스 號 | 49 | — | — | — | — | 49 |
| 神功丸 | 123 | — | — | — | — | 123 |
| 니콜라이 號 | — | 37 | 1 | 21 | 92 | 151 |
| 曙丸 | — | 51 | — | 3 | 39 | 93 |
| 오르가 號 | — | — | — | 126 | — | 126 |
| 이나즈마丸 | — | — | — | 46 | — | 46 |
| 이나즈치丸 | — | — | 31 | 3 | 11 | 45 |
| 합계 | 172 | 88 | 32 | 199 | 142 | 633 |

출전 :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위의 책, p.246.

〈표4〉 사업장 및 포경선 별 포획고(1908년 7월말 결산, 단위:頭)

| 船名 | 蔚山 | 鮎川 | 銚子 | 大島 | 宍喰 | 清水 | 合計 |
|--------|----|-----|----|----|----|-----|-----|
| 렉스 號 | 61 | — | 24 | — | — | — | 85 |
| 神功丸 | 6 | — | — | — | — | — | 6 |
| 니콜라이 號 | — | 60 | — | 10 | 18 | 15 | 103 |
| 曙丸 | — | 96 | — | 1 | 4 | 44 | 145 |
| 오르가 號 | 10 | 1 | 27 | 30 | — | — | 68 |
| 이나즈마丸 | — | — | 25 | 47 | — | 11 | 83 |
| 이나즈치丸 | — | — | 12 | — | — | 45 | 57 |
| 합계 | 77 | 157 | 88 | 88 | 22 | 115 | 547 |

출전 :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위의 책, p.247.

이와 같은 동양어업의 호황에 자극되어 노르웨이식 포경에의 신규 참여와 기존 회사의 확장이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06년부터 1907년에 걸쳐 집

68) 東洋捕鯨株式会社編(1910), 위의 책, p.246

증적으로 나타났는데, 1908년 현재 일본 근해의 포경어장에서 조업하는 동업자는 12사에 사업선수 총 28척(범선 2척 제외)에 달하였다. 포경업에의 과잉투자였던 셈인데, 이들 회사들은 경험미숙과 과당경쟁으로 많은 폐해를 발생시켰다. 예컨대, 노르웨이식 포경업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숙달된 포수 및 선원의 확보를 위한 경쟁, 先入 회사의 근거지 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배가함으로써 선입 회사의 이권 내에 할거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사례였다.⁶⁹⁾ 1907년 7월말 결산 때 최고 54%에 달했던 동양어업의 배당률이 그 다음해 결산 때 30%로 하락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당경쟁을 막고 각종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동양어업과 나가사키 포경 주축로 1908년 6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全國同業者懇話大會가 개최되었다. 동업자대회의 결의사항 중에서는, 물론 鯨族의 酷漁 濫獲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노르웨이식 포경선 수의 제한(30척 이하)도 중요하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결의사항은 포경업의 자체 통제를 위한 강제가맹의 법인수산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농상무성의 협조와 인가를 얻어 설립된 일본포경수산조합이 그것인데 1908년 12월 18일의 일이었다. 동 조합의 조합장에는 동양어업의 오카가 취임하였다.⁷⁰⁾

그러나 오카 등은 어획과 수요의 불균형이나 사업선의 과잉⁷¹⁾ 등과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조합의 설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동업회사의 대합동을 통해 회사 수를 줄임으로써 사업선 수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 하에 동양어업을 중심으로 대합동이 단행되었으나 <표5>와 같이 총 12사 중 동양어업, 나가사키 포경, 대일본포경, 제국수산의 4대 신규 포경회사만이 최초 합동에 응하였고, 이후 2사(동해어업과 태

69)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68~269

70) 발기인은 岡十郎, 舟木鍊太郎, 原眞一, 曾根忠兵衛, 泉仁三郎五 등 조합설립에 찬성한 각 회사의 대표들이었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68~272

71) 이렇듯 세계 유수의 捕鯨漁場이었던 동해안에서의 포경업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濫獲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되자, 한국 정부는 1907년 9월 30일 법률 제7호로서 '捕鯨業管理法'를頒布하여 漁期, 根據地, 漁業方法 등에 관한 제한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 주무부서인 農商工部에 하여금 적당한 取締方法을 지시하였다. 『舊韓國官報』隆熙 元年(1907년) 10월 2일; 統監官房(1908) 『韓國施政年報』(韓國學文獻研究所編(1984)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II』 政治2, 亞細亞文化社), p.247

평양어업의 계승자인 이와타니 상회[岩谷商会]를 매수하여 총 6사가 합동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합동의 결과 1909년 5월에 신설된 것이 자본금 700만 원의 東洋捕鯨株式会社(200만 원 불입, 14만주, 이하 ‘동양포경’이라 줄임)였다. 합병 신설된 동양포경은 총 20척의 사업선(차입선 2척 포함)과 20개소의 사업장⁷²⁾을 보유함으로써 일본 최대 규모의 포경회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국 포획량의 3분의 2를 점하고 판매시장까지 석권하였다. 오키는 일본포경수산조합의 조합장에 이어 동양포경의 사장에까지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본 포경업의 거두가 되었다.⁷³⁾

〈표5〉 1908년 8월 제3회 全國同業者懇話大會 참석 회사

| 회사명 | 자본금(萬圓) | 불입액(萬圓) | 捕鯨船數(隻) | 비고 |
|-----------|---------|---------|---------|------|
| 東洋漁業株式会社 | 200.0 | 60.0 | 5 | 합동참가 |
| 長崎捕鯨合資会社 | 60.0 | 60.0 | 5 | 합동참가 |
| 大日本捕鯨株式会社 | 300.0 | 75.0 | 4 | 합동참가 |
| 帝國水産株式会社 | 200.0 | 50.0 | 3 | 합동참가 |
| 内外水産株式会社 | 100.0 | 25.0 | 2 | |
| 大東漁業株式会社 | 80.0 | 20.0 | 2 | |
| 東海漁業株式会社 | 15.0 | 15.0 | 1 | 매수 |
| 土佐捕鯨合名会社 | 10.5 | 10.5 | 1 | |
| 丸三製材株式会社 | 24.0 | 15.0 | 1 | |
| 紀伊水産株式会社 | 50.0 | 12.5 | 1 | |
| 長門捕鯨株式会社 | 20.0 | 10.0 | 1 | |
| 합계 : 12사 | 1,159.5 | 378.0 | 28 | |

출전 :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p.14~15.

72) 20개의 사업장 중 한국 소재 사업장으로는,蔚山, 長箭, 新甫, 巨濟島 사업장으로 4개 사업장 모두 冬期 사업장이었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0

73) 이때 다른 역원에는 原眞一, 横山一平, 曾根忠兵衛(이상 상무취체역), 山野辺右左吉, 舟木鍊太郎, 小曾根喜一郎(이상 취체역), 松尾寛三(전임감사역), 山田桃作, 伊丹彌太郎(이상 감사역), 牧朴眞(고문역), 福島宜三(상담역)이 각각 취임하였다. 井関九郎 編, 앞의 책, p.381. 한편, 아마다는 1909년 오사카에 '伊佐奈商會'를 설립하고 鯨肉, 鯨油, 鯨肥料, 식료가공품, 기타 해산물 일체를 취급하는 委託 問屋(중간 도매상)을 시작하였다. 동 상회는 지점 및 출장소를 北海道, 滿洲, 韓國 등지에 20개가 넘게 설치하고 있었다. 이후 아마다는 鯨肉 특히 赤肉의 식용화를 선전하고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絹の道の會(1994), 앞의 책, p.49

그러나 1909년 5월의 동양포경의 성립과 동양어업의 해산은, 일본 포경업의 대명사였던 이치마루 회사(一〇会社)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었다.⁷⁴⁾ 1899년부터 일본 포경업을 대표하던 일본원양어업과 동양어업을 뜻하던 이치마루 회사는 일본 포경업계 그 자체였다. 즉, 일본 근대 포경업을 이끌었던 이치마루 회사 한국의 동해포경어장을 발판으로 새로운 포경기술을 시험하고, 그 성공에 힘입어 노르웨이 포경기술의 일본 내 확대 = 일본 근대 포경업의 정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일본 산업 특히 포경업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한국 지배를 둘러싼 두 제국주의 세력의 대립과 충돌에서 말미암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라고 하겠다.

끝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과 관련하여 지적해 둘 것은, 일본의 포경업자들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진출하여 한일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大韓勸農株式會社(1907년 설립)의 발기인 및 역원으로 일본의 포경업자들이 상당수 참가하고 있었고, 이는 한일 양국민의 융화를 통한 점진적인 식민지화라는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식민지화 전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일 양국의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산업개발(=利源開發)을 담당케 함으로써 식민지화에 따른 반일 감정을 완화시켜 간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농업과의 관계가 희박한 오카와 야마다 도사쿠 등의 수산업(포경업) 종사자들이 대한권농이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이 한말 일제에 의한 한국 침략에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다.⁷⁵⁾

맺음말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노르웨이식 포경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일본 포경

74) 岡十郎, 山田桃作, 河北勘七 3명은 東洋漁業株式會社の 청산총회에서 주주일동으로부터 공로 표창과 함께 금배 각 1조씩을 받았다고 한다. 東洋捕鯨株式會社編(1910), 위의 책, p.250

75) 김명수(2006) 「일제하 일본인의 기업경영 -朝鮮勸農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업의 근대화가 동해포경어장에서의 패권 장악과 함께 일본 국내에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가와키타 간시치와 같은 대외 강경론자가 중심에 서고, 여기에 오카나 야마다 도사쿠와 같은 아마구치 현의 실업가들이 결합함으로써 일본원양어업이 탄생하였음은, 그후 동해포경어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러일 양국 간의 포경전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한국 지배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고자 일본이 채택한 상황 의존 전략(contingent strategy)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해포경어장에서 전개된 러일 간의 포경전은 한국을 둘러싼 러일 간의 각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이러한 각축은 러일전쟁에서의 승리와 함께 동해 포경업이 일본의 독점 하에 놓이게 됨으로서 일단락을 보게 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함께 제시되었다. 아울러 일본원양어업에 참가했던 아마구치 현의 실업가들이 자신들의 주 종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선권농이라는 농업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을 밑에서부터 지지하고 있었음 또한 새로운 사실로 지적되었다.

일본원양어업은 설립 이후 동양어업주식회사, 동양포경주식회사, 일본포경주식회사(1934~1936), 공동어업주식회사(1936~1937), 일본수산주식회사(1937~1943)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 포경업계의 一大潮流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흐름 형성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한국의 동해포경어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포경산업의 근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이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이다.⁷⁶⁾

참고문헌

- 國史編纂委員會(199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제14권
 김명수(2006) 「일제하 일본인의 기업경영 -朝鮮勸農株式會社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76) 『日本近代漁業經濟史』의 저자 羽原又吉도 「日本捕鯨業의 發達이 韓國出漁와 不可分の關係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어 참고된다. 羽原又吉(1957), 앞의 책, p.171

- 朴九乘(1970) 「韓末 東海捕鯨業을 둘러싼 露·日의 角逐」 『亞細亞研究』 38, 고려대학교, pp.29~30
- 統監官房(1908) 『韓國施政年報』(韓國學文獻研究所編(1984)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Ⅱ』 政治2, 亞細亞文化社), p.247
- 井関九郎編(1917) 『現代防長人物史』 天·地·人 發展社, pp.57~58, pp.372~375
- 大隅清治(2003) 『クジラと日本人』, 岩波書店, pp.64~65
- 奥谷松治(1940) 『品川彌二郎傳』, 高陽書院
- 川澄哲夫(2004) 『黒船異聞:日本を開国したのは捕鯨船だ』, 有隣堂
- 絹の道の会(1994) 『しものせき·人·物語(五)』(桂彌一·岡十郎·山田桃作·山頭火), p.48
- 慶應義塾(1986) 『慶應義塾入社帳』 第三卷, p.20
- 慶應義塾(1887) 『明治二十年第二期 慶應義塾勤惰表』
- 下関市教育委員会編(1986) 『下関の記念碑-旧市内編-』, pp.67~68
- 世界水産総覧編輯委員会編(1965) 『世界水産総覧』, 農林經濟研究所
- 衆議院事務局編(1940) 『第一回乃至第二十回総選挙 衆議院議員略歴』(『政治家人名資料事典』 第1卷, 日本図書センター, 2003년으로 復刊), p.88, p.164, p.231
- 中園成生(2001) 『くじら取りの系譜』, 長崎新聞社, p.183
- 野村義文(1992) 『天津事件:露国ニコライ皇太子の来日』, 葦書房
- 羽原又吉(1957) 『日本近代漁業經濟史』 下卷, 岩波書店, pp.139~171
- 福本和夫(1960) 『日本捕鯨史話:鯨組マニファクチュアの史的考察』, 法政大学出版局
- 渡辺洋之(1998) 「近代日本捕鯨業における技術導入と労働者」 『科学史研究』 第37卷 (No.205), 日本科学史学会, p.4
-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 ❖ 투고일 : 2007. 6. 30.
- ❖ 심사일 : 2007. 7. 30.
- ❖ 심사완료일 : 2007. 8. 16.